『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4
pp.061-076 ISSN : 1229-9618

한국에서의 한자병용에 대한 단상(斷想)*

나윤기**

【목 차】

1. 서론
2. 한국 한자어의 특징
   1) 의미 범주의 변화
   2) 고금 문체의 차이
   3) 감정적 색채의 변화
   4) 자순의 변화
   5) 한국 고유 한자어 생성
3. 한자에 대한 편견
   1) 한자병용은 우리말의 발전을 저해하는가?
   2) 한자는 비능률적이고 지식의 대중화에 방해가 되는가?
   3) 한자는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편한 문자인가?
   4) 한자병용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인가?
4. 결론

【초록】

한자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사용한 지식의 보고이자 유산이다. 우리의 음(音)과 훈(訓)으로 이미 한국어에 녹아든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의 의식구조, 문화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광복이후 한국어의 순수성에 중점을 둔 이상주의와 언어실상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의 대립은 문자정책의 혼란을 야기했고, 그 결과 젊은 세대의 언어문자 생활과 국어 능력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과 중국의 상용어를 중심으로 한국 한자어가 지닌 의미 범주의 변화, 문체의 차이, 감정 색채의 차이, 자순의 변화, 한국 고유 한자어의 생성 등등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보고, 한글세대의 언어 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한자에 대한 몇 가지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한자병용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43693)

** 한국한자연구소 HK연구교수 (nayungi@hanmail.net)

한다.

【키워드】 한자병용, 한글전용, 한국 한자어, 한자, 한글

1. 서론

문자는 시각적 기호에 의한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체계이며 인간의 문화 및 사상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찍이 문자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한자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고 동시에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의 역사와 사상을 기록하며 빛나는 문화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상이한 언어체계에 따른 문자생활의 불편함은 15세기 훈민정음 창제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한글은 여전히 기록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자생활의 불편함은 자연스레 국어와 한자어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특히 독음과 어휘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호성(2000)의 연구 통계[1]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가 되고 한자어가 고유어나 외래어와 합성된 비율까지 포함하면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전체	고유어	외+고	한자어	고+한	한+외	한+외+고	외래어
어휘수	440,262	111,299	1,331	251,578	36,461	15,548	751	23,196
비율(%)	100	25.28	0.3	**57.12**	**8.28**	**3.53**	**0.17**	5.26

북송(北宋)시대 봉사고려국신서장관(奉使高麗國信書狀官)이던 손목(孫穆)이 편찬한 견문록이자 어휘집인 『계림유사(鷄林類事)』는 고려시대 한국어의 대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 361개의 어휘 중 약 10%의 어휘가 이미 한자어를 차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말이 지속적으로 한자 어휘를 수용하여 한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어 왔으며 시대를 거듭할수록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한자어 분포 상황 역시 장기간에 걸쳐 중국의 한자 어휘를 우리의 언어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재조정한 결과이며, 동시에 한국어에서 한자 어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종대왕이 창시한 훈민정음이 공용 문자로서 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94년의 조선 정부 칙령 제1호인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 본(本)을 삼고, 한역(漢譯)을 부하며, 혹 국한문을 혼용함."이라는 한글 전용 원칙에 관한 법령이 공포된 이후이다. 비록 이 원칙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순한문 중심의 문자생활에서 점차 국한문혼용체(國漢文混

1) 정호성,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제10호, 국립국어연구원, 2000, p.63.

用體)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순한문체 일색이었던 「관보(官報)」 역시 1895년부터는 국한문을 섞어 썼으며 각종 간행물과 문학작품 및 종교서적 등에도 이러한 국한문혼용체가 점차 주류를 형성하였다.

광복 이후 미군정 산하 조선교육심의회의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초등·중등학교의 교과서는 전부 한글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한자를 도림(괄호) 안에 적어 넣을 수 있다."는 결정과 정부수립 이후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제6호에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제시되었지만, 이 원칙은 정부기관의 일부 공문서에만 적용되었을 뿐 당시 일반 사회의 문자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한문혼용 추세는 1968년에 이르러 한글전용 5개년계획안이 발표되고 상용한자 폐지와 함께 교과서에서 한자를 완전 폐지하였고 1970년 대통령령으로 「한글전용법」이 공포되어 교과서는 한글 전용으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여러 차례 문자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혼란한 상황이 출현했지만 한글전용의 추세는 점차 주류를 이루었다.

1984년 「국어문법통일안」이 확정되고, 1986년의 「외래어표기법」, 1988년의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의 공포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한글 전용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글전용론은 한자를 배제하여 한국어의 순수성을 유지하여 민족적 자각심을 높이며, 중국에 대한 정신적 예속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회복하여 민족문화 발전과 신속한 지식 보급과 창출에 크게 이바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말에 녹아있는 다량의 한자어휘와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유입된 새로운 한자 어휘에 대한 처리 방식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근대시기에 이르러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증폭되고 다양해진 우리말 속의 한자 어휘를 어떻게 다듬고 어떤 위상을 설정하는가라는 문제는 미래의 한국인의 언어문자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깊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문자는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말에 존재하는 수많은 한자 어휘를 고유어로 바꿀 수 없다면, 한국한자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한국어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는 전통문화의 기초 위에 부단히 외부의 요소를 흡수하여 자신의 언어체계에 맞게 적절하게 융화시켜 발전된 결과물임으로, 진영의 논리나 민족주의 사상 혹은 문화 사대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한글의 효율성과 한자의 뛰어난 조어력 등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한국인의 언어문자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데 토론의 출발점을 두고자 한다.

2. 한국 한자어의 특징

어휘는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어휘의 발전과 변화는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구한 세월 속에 인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휘 역시 변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어휘는 사회 문화의 거울로써 완고한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문화의 변천

역시 어휘 속에 그 흔적을 담게 된다.

한자가 중국 주변 국가에 전래된 이후, 각국의 사회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현상, 또는 새로운 관념이 출현하면 새 어휘를 만들어 그것을 표기하여 교제의 필요성을 만족시켰다. 각각 상이한 역사적 배경, 지리환경, 종교 신앙 및 가치관의 차이로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주변국은 기존의 한자 어휘의 바탕 위에 각 민족의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한자 어휘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한자 어휘 비교를 통해 각국의 한자 어휘의 특징을 고찰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여 문화적 배경과 연계하면 각국의 사회 문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열쇠가 된다.

한국의 대부분의 한자 어휘는 크게 아래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자 어휘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형태와 의미가 중국과 같거나 비슷한 한자 어휘. 둘째, 동형(同形)의 어휘지만 한자권의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한 의미로 쓰이는 한자 어휘. 셋째, 고대 한자의 기초 위에 독자적으로 만든 한자 어휘. 즉, 한국의 고유한자어인 감기(感氣), 미안(未安), 민폐(民弊)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근대 시기 일본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새로 만든 어휘로, 해방 이후 순화운동에서도 제외되어 각 분야에서 전문용어로 쓰이는 한자 어휘이다. 그 중 두 번째 유형은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로서 언어사, 문화사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본 편은 이 유형의 어휘를 중심으로 중국·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한자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미 범주의 변화

结束: 한국어는 '결속·결박'의 의미로 쓰이는데 반해 중국어는 '마치다'의 의미로 쓰인다.

高度: 한국어는 수준이나 정도 등이 매우 높거나 뛰어나는 것을 지칭한다. 중국어는 주로 정도만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高度重视', '高度紧张' 등이다. 일본어는 '高度な技術', '高度な談話'처럼 '수준이 높다'는 의미로 쓰인다.

工夫: 한국어는 '공부하다, 학습하다'의 의미이고 중국어는 '어떤 일에 들인 시간과 정력'을 가리키며, 또한 '한가한 시간'을 가리킨다. 일본어는 '궁리하다, 방법을 강구하다'의 의미로 변하였다.

汽車: 한국어과 일본어는 '기차'의 의미로 중국에서는 '일반 차량'을 가리킨다.

娘: 한국어는 처녀, 혹은 중년 부녀의 존칭인 낭자(娘子)란 의미로, 중국어는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姑娘', 혹은 모친이나 나이든 부녀의 경칭인 '大娘'으로 쓰인다. 일본어는 '딸'의 의미로 쓴다.

對象: 한국어와 일본어는 '상대방'을 지칭하고, 중국어는 '연애 상대'를 지칭한다.

東西: 한국어는 동서쪽을 가리키지만 중국어는 놈, 물건 등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莫大: 한국어와 일본어는 금전과 연관된 것을 수식하는 데 반해, 중국어는 금전과 관계없이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莫大的关心', '莫大的光荣' 등이 있다.

明朗: 한국어는 '성격 따위가 쾌활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중국어는 '환하다, 쾌활하다' 또는 '태도나 형세가 분명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일본어는 '쾌활하다'는 의미 외에 '거짓 없고 공정

하다'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면, '明朗な政治', '明朗な會計' 등이 있다.

病院: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대형 병원을 지칭하고 소규모 개인병원은 의원(醫院)이라 한다. 중국어는 대형 병원은 '医院'이라 쓴다.

先輩: 한국어와 일본어는 '선배'를 가리키는데 반해 중국어는 '작고한 선열(先烈)'을 지칭한다.

新聞: 한국어과 일본어는 '신문'을 가리키는 반면 중국어는 '뉴스'를 가리킨다.

新鮮: 한국어와 일본어는 추상적인 의미로 작품, 감각, 인식과 관련되어 '신선하다, 참신하다, 생동감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중국어는 '新鲜水果', '新鲜事'처럼 '신선하다, 싱싱하다, 보기 드물다' 등의 의미로 쓴다.

愛人: 한국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로, 중국어는 '배우자'의 의미가 추가되었으며, 일본어는 '내연의 관계'를 지칭하는데 쓰인다.

外人: 한국어와 중국어는 '타인'의 의미로, 일본어는 '외국인'의 의미로 쓴다.

掌握: 한국어는 '제어하다'는 의미인데 반해 중국어는 '습득하다'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祭: 한국어에서는 제사 외에 축제의 의미로 두루 쓰이지만 중국어는 '고인에게 제사를 지내다'는 의미로만 쓰인다.

第三者: 한국어와 일본어는 '상관없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반해 중국어는 주로 '남녀관계에서 부부 이외의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處理: 한국어는 일반적인 처리를 의미하는데 반해 중국어는 염가판매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親切: 한국어와 일본어는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중국어는 주로 심리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亲切关怀', '亲切眼光' 등이다.

2) 고금 문체의 차이

한자 어휘가 차자(借字)의 형식으로 한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에서는 이미 구어(口語)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서면어로만 존재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구어로 쓰이고 있는 어휘들이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補佐: 중국어는 '군주 혹은 고위 관리를 모시다'는 의미로 구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구어로 흔하게 쓰이고 있다.

斡旋: 중국에서는 서면어로만 쓰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직업을 알선하다, 만남을 알선하다'는 의미로 구어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

總角: 한국어는 결혼하지 않는 성년 남자를 가리키지만 중국어는 구어로 쓰이지 않는다.

抱負: 중국어에서는 구어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

3) 감정적 색채의 변화

‘결과’의 의미로 중국어엔 成果, 結果, 後果가 있는데 각각 긍정적, 중성적, 부정적 감정 색채를 띠고 있다. 어휘의 감정색채는 사회 환경의 차이와 문화 이념간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중일의 일부 한자 어휘는 형태는 같지만 어휘에 대한 이해와 감각은 서로 다른 색채를 띠고 있다. 이런 까닭에 각국의 한자 어휘를 학습할 때에 주의를 요한다. 이런 유형을 몇 가지 들면 아래와 같다.

可觀: 중국어는 중성적으로 ‘볼만하다’는 의미지만 한국어는 주로 ‘행동이나 모습 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스움’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색채로 쓰인다.

客氣: 중국어는 중성적으로 ‘공손하다’는 의미지만 한국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쓸데없이 부리는 용기’를 의미한다.

鼓吹: 중국어에 ‘고취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과장해서 선전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한국의 경우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光彩: 중국어는 긍정적인 의미인 ‘명예롭다’는 의미가 추가되었지만 한국어는 중성적인 의미로만 쓰인다.

勤勞: 중국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부지런히 일하다’로 쓰이지만 한국어는 단순히 ‘노동’을 의미한다.

奇特: 중국어는 중성적으로 특이하다는 의미지만 한국어는 긍정적인 의미인 ‘기특하다’로 쓰인다.

放心: 중국어는 중성적으로 ‘안심하다’는 의미지만 한국어는 부정적인 의미의 ‘방심하다’로 쓰인다.

幫助: 중국어는 중성적으로 ‘돕다’는 의미지만 한국어는 부정적 의미인 ‘방조하다’로 쓰인다.

敷衍: 중국어는 부정의 의미로 ‘부연설명하다’는 뜻이지만 한국어는 중성적인 의미로 쓰인다.

批評: 중국어는 주로 ‘비판하다’의 의미로 쓰는데 반해 한국어는 중성적 의미로 쓰인다.

小心: 중국어는 중성적으로 ‘조심하다’는 의미지만 한국어는 부정적인 의미의 ‘소심하다’로 쓰인다.

手段: 중국어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부정당한 방법’을 가리키지만 한국어는 중성적인 의미로 방법, 수단 등을 가리킨다.

齷齪: 중국어는 ‘더럽다’는 의미로 한국어는 ‘악착같다’는 의미로 쓰인다.

圓滑: 중국어는 ‘교활하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한국어는 ‘원활하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색채를 지닌다.

自負: 중국어는 부정적인 색채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다’는 의미이지만 한국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質問: 중국어는 ‘추궁하다·질타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국어는 중성적인 의미로 ‘질문하다’는 의미로만 쓰인다.

癡情: 중국어는 단순히 ‘사랑에 빠지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한국어에는 부정적 의미로만 쓰인다.

打算: 중국어는 ‘생각, 계획’의 의미지만 한국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를 따져 헤아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鞭撻: 중국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규탄하다, 질책하다'는 뜻이지만 한국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지도편달'을 의미한다.

歡樂: 중국어는 중성적으로 '즐거움'을 의미하지만 한국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劃策: 중국어는 중성적으로 '기획하다'는 의미지만 한국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일을 획책하다'로 쓰인다.

4) 자순의 변화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를 어휘를 비교해보면 자순(字順)이 앞뒤로 도치된 예가 흔히 발견된다. 사전은 사용 빈도와 무관하게 기존에 사용되어진 모든 어휘를 집대성한 까닭에 두 유형의 한자가 여전히 실려 있지만 실제 구어(口語)에서는 이미 생명을 잃은 어휘가 많이 존재하므로 본 편에서는 구어에 한정해서 상용어 중심으로 자순 변화를 살펴보았다.

ID	독음	한국	중국	ID	독음	한국	중국
001	간통	姦通	通奸	002	감상	感傷	伤感
003	감쇠	減衰	衰减	004	감축	減縮	减缩/缩减
005	강연	講演	演讲/讲演	006	강철	鋼鐵/鐵鋼	钢铁
007	거주	居住/住居	居住	008	건강	健康	康健/健康
009	경감	輕減	减轻	010	고통	苦痛	痛苦/苦痛
011	곤궁	困窮	穷困	012	관장	管掌	掌管
013	광영	榮光	光荣	014	괴기	怪奇/奇怪	奇怪
015	괴수	魁首/首魁	魁首	016	근엄	謹嚴	严谨
017	근접	近接/接近	接近	018	기괴	奇怪/怪奇	奇怪
019	기력	氣力	力气	020	기일	期日	日期
021	나포	拿捕	捕拿	022	낙착	落着	着落
023	난잡	亂雜	杂乱	024	남동	南東	东南
025	남서	南西	西南	026	누설	漏洩	泄漏
027	단계	段階	阶段	028	단축	短縮	缩短
029	단편	斷片	片断	030	대상	隊商	商队
031	대체	代替	替代/代替	032	도래	到來	来到/到来
033	등반	登攀	攀登	034	매매	賣買	买卖
035	매수	買收/收買	收买	036	면회	面会	会面
037	목축	牧畜	畜牧	038	문책	問責	责问
039	발산	發散	散发/发散	040	배가	倍加	加倍
041	배분	配分/分配	分配	042	병탄	併呑	吞并
043	병폐	病弊	弊病	044	보류	留保/保留	保留
045	보수	補修	修补	046	북동	北東	东北

047	북서	北西	西北	048	분규	紛糾	纠纷
049	분발	奮發	发奋/奋发	050	분장	扮裝	装扮
051	사기	詐欺	欺诈	052	상호	相互	互相/相互
053	선조	先祖	祖先/先祖	054	소개	紹介	介绍
055	소박	素朴	朴素	056	솔직	率直	直率/率直
057	수반	随伴	伴随	058	시설	施設	设施
059	암흑	暗黑	黑暗	060	액문	額面	面额
061	야반	夜半	半夜	062	약혼	約婚/婚約	婚約
063	억압	抑圧	压抑	064	언어	言語	语言/言语
065	여과	濾過	过滤	066	연마	練磨	磨练
067	연하	年賀	贺年	068	열광	熱狂	狂热
069	열악	劣悪	恶劣	070	영광	榮光/光榮	光荣
071	예민	鋭敏	敏锐/锐敏	072	오류	誤謬	谬误/误谬
073	운명	運命	命运	074	운반	運搬	搬运
075	위안	慰安	安慰	076	위장	胃腸	肠胃
077	위패	位牌	牌位	078	유인	誘引	引诱
079	융통	融通	通融/融通	080	이별	離別	别离/离别
081	이전	移転/転移	转移	082	이탈	離脱	脱离
083	인근	隣近	近邻	084	인솔	引率	率引
085	전개	展開	开展/开展	086	절도	竊盜	盗窃/盗窃
087	절박	切迫	迫切	088	정숙	靜肅	肃静
089	정적	靜寂	寂静/静寂	090	제련	製錬	炼制
091	제한	制限	限制	092	준엄	峻嚴	严峻/峻严
093	증가	增加	增加	094	지연	遲延	延迟/迟延
095	착의	着衣	衣着	096	체구	體軀	躯体
097	축적	蓄積	积蓄	098	충전	充塡	填充/充填
099	치아	齒牙	牙齿	100	침입	侵入	入侵
101	탐정	探偵	侦探	102	토사	土砂	沙土
103	투쟁	鬪爭	争斗/斗争	104	패전	敗戰	战败
105	평화	平和	和平/平和	106	포옹	抱擁	拥抱
107	한계	限界	界限	108	해독	害毒	毒害
109	허용	許容	容许	110	호칭	呼稱	称呼
111	환호	喚呼	呼唤	112	회수	回收	收回/回收
113	희비	喜悲	悲喜				

* '/' 표시는 동시 사용을 의미함.

위의 표를 통해 상당 수량의 동형 한자어가 중국과 비교해서 자순이 도치되어 있다. 이러한 자순의 변화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음절 간의 결합력이 약한 고대에 두 유형이 혼용되다 후에 각국의 언어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로 고착된 경우가 있고, 이와 반대로 한국어가 초기의 자순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근대 중국어가 자순이 뒤바뀐 경우도 있으며 그 반

대의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그 외 각 언어의 특성에 기인하여 의미와의 관련성에 의해 자순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다.

5) 한국 고유 한자어 생성

한자는 한자문화권을 형성시킨 공용문자로서 이들 지역의 의식구조, 문명형성과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근대화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 관념이나 사물 명칭이 많이 사라졌고 일본을 통해 서구의 문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에 한국어에는 자연스레 일본식 한자어휘가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다. 비록 국어순화운동으로 상당수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였지만 전문용어나 개념어 방면에는 한자가 나타내는 의미의 세분화 특성과 막강한 조어력으로 인해 한글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유형의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휘 수용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으며 민족성 주체성과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천 년간 한자를 사용하면서 지혜로운 사고방식으로 우리 현실생활에 맞는 한국식 한자어를 생산하였다. 예를 들면, 감기(感氣), 거래(去來), 고생(苦生), 공책(空冊), 궁합(宮合), 당신(當身), 대지(垈地), 덕분(德分), 독감(毒感), 도령(道令), 명절(名節), 명태(明太), 명함(名銜), 목수(木手), 무궁화(無窮花), 미안(未安), 민폐(民弊), 문병(問病), 복덕방(福德房), 사발(沙鉢), 서방(書房), 성함(姓銜), 생선(生鮮), 소풍(逍風), 시조(時調), 앙숙(怏宿), 야박(野薄), 양말(洋襪), 원어민(原語民), 인사(人事), 향가(鄕歌), 회갑(回甲) 등처럼 우리말에는 조상들이 만들고 물려준 소중한 한국식 한자 어휘들이 다량 존재하고 있다. 한국식 한자어에는 우리 민족의 언어관, 생활방식, 의식구조 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기인하여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자어휘에 대해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국가 간 한자어 생성과 발전, 어휘의 차이와 상호 영향 등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여 한자문화권 내의 각국의 어휘의 고유성을 규명함으로써 국가별 문화적 특성과 의식구조를 고찰할 수 있는 동시에 무분별하게 유입된 일본식 한자 어휘를 순화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한자에 대한 편견

앞에서 우리는 한국 한자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한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언어문자생활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자병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자에 대한 피상적인 편견이라 생각한다. 언어의 순수성만 우선시하여 한자어를 배제하는 것은 배타적인 어문정책은 스스로를 고립시켜 오히려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에 방해가 된다.

광복 이래 이어졌던 한글전용과 한자혼용론의 대립은 단순히 문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어와 한자어를 포괄하는 어휘 전반에 걸친 논쟁이다. 아래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한글전용의 장단점과 한자혼용의 장단점을 논점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논점	장점	쟁점
전용	언어의 순수성	한국어의 순수성 유지	다수 한자어 의미 변별 기능 약화
	학습능률	학습의 편의성과 효율성 확보	
	정감 표현	한국인 정감 표현에 유리	명확한 개념어와 학술용어 결핍
	전산화	데이터 처리 용이	한자의 전산화의 불편도 해소되었음
	음운체계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적합	한자어도 국어에 완전히 동화되었음
	현실언어생활	한글 사용 촉진	
	고유어로 대체	순화운동으로 일부 성과 거둠	현실적으로 가능성 결핍
	전통문화 계승	고전의 한글 번역 확대	
혼용	시각적 효과	의미 파악 용이	학습의 부담 증가
	조어력	파생어휘를 대량 생산하고 축약 가능	
	학습능률	학습 습득 후 어휘력 증대	배우기 어렵고 사용상 불편하다.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 식별 용이	
	전통문화 계승	고대 선조의 전통문화 계승	
	주변국과 소통	한자문화권 통용문자로 지적 문화적 소통 용이	독음의 차이가 존재함
	어휘능력	동일 의미의 여러 어휘로 인해 구사 어휘의 다양성 확보와 언어능력의 극대화	언어능력의 극대화

위의 표를 근거하면 한글전용과 한자혼용론은 서로 상치(相馳)되는 논리가 아니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이후 지속되어온 한글전용과 한자혼용의 논쟁은 결국은 국어의 순수성에 중점을 둔 이상주의와 언어실상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필자는 아래 몇 가지 한자와 관련된 편견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 한자병용은 우리말의 발전을 저해하는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제(學際) 간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각 분야는 서로의 지적 자원을 연계시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독자적인 연구는 관련 학문과 상호 연계되어야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속담처럼 타인의 장단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자신의 실질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문자체계가 없었던 수천 년간 한자는 우리의 의사소통

과 서사(書寫)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한자 어휘는 한국어의 어휘의 60% 가량 차지할 정도로 우리말 속에 깊이 녹아들었다. 문자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와 달리 지식이 대중화된 오늘날, 언어의 순수성에 입각하여 한자는 우리의 문자가 아니기에 한자를 배제하고 고유어로 대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 언어생활을 도외시한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에 가깝다.

인류 문화의 발전사 측면에서 보면, 문화의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것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발전 승화시켰는가가 중요하다. 김치를 예로 들면 전통적인 우리의 백김치에 외국에서 유입된 고추가 융화되어 오늘날 한국의 전통 음식의 상징이 되었다. 영어 또한 어휘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 로마의 문자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소통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한자 역시 우리말 체계에 동화되어 독특한 한국한자음을 발전시켰고 다량의 한자 어휘를 생산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차용어로써 한국어에 전해진 한자어는 이미 긴 세월 우리말에 융화되어 숙성된 우리의 중요한 언어 자원으로서, 고유어를 위축시켜 우리말의 발전을 저해(沮害)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고 한글의 단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한자병용은 한국인의 문자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이고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2) 한자는 비능률적이고 지식의 대중화에 방해가 되는가?

한자병용은 한자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개념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하다'는 의미의 한자에는 '思, 想, 慮, 念, 考, 憶' 등이 있는데, 인지 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글의 '생각'은 상위 층위인데 반해 한자의 '思, 想, 慮, 念, 考, 憶' 등은 하위 층위라 볼 수 있다.

고유어	한자	한자 어휘
생각(하다)	思	思考, 思量, 思慮, 思料, 思想, 思索, 思惟, 思慕, 思母曲, 思辨, 思潮, 思春期, 意思, 心思, 相思 ·····
	想	想念, 想像, 想起, 冥想, 默想, 着想 ·····
	慮	考慮, 思慮, 配慮, 熟慮, 心慮, 念慮, 憂慮 ·····
	念	槪念, 執念, 諦念, 通念, 觀念, 念力, 念頭, 念慮, 念佛 ·····
	考	考慮, 考案, 思考, 一考, 長考, 再考, 參考 ·····

하위 층위의 미세한 차이는 학술 전문용어 등에서 개념의 설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이유도 한자의 문자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자의 70%로 이상이 형성(形聲)에 속하지만, 여전히 의미 정보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표음문자인 한글에 비해 한자는 시각적으로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한자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한자를 습득하면 학습 효과가 배가되어 그 한자와 연계되는 많은 어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어휘량의 증가는 전반적인 언어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며 언어 능력의 향상은 이해력과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 어휘에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가 상당량 존재하고 있는데[2] 한자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는 이들을 다의어(多義語)로 인식하는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장단음이 의미 변별 기능이 사라져 모두 단음으로 읽게 되는 등 한국어의 변질 및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흔하게 접하게 된다. 아래의 표에 몇 개의 실례를 들어보았다.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가계	家計	감정	感:情	가정	假:定
	家系		鑑定		家庭
경비	經費	경로	經路	기상	氣像
	警:備		敬:老		氣象
가공	加工	고문	拷問	감상	感:傷
	可:恐		顧問		感:想
	架:空		古:文		鑑賞
검사	檢:事	공사	工事	기구	機構
	劍:士		公私		氣球
	檢査		公使		崎嶇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한자어인 '技士:記事:棋士:騎士', '冷情:冷靜', '散亂:産卵', '首都:修道:水道', 水溶性:受容性', '水溶性:受容性', '醫師:義士:意思', '陣痛:鎭痛' 등의 동음이의어를 한글로만 표기하게 되면 의미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어의 변별력도 떨어지게 되어 한글전용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지식의 대중화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이처럼 한글전용과 한자병용의 논쟁은 단순한 표기 문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자생활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자는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편한 문자인가?

목수가 목공일을 원활하게 완성하기 위해 각종 장비를 준비하듯이 학생들은 어휘 능력을 향상시켜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정기간 문자와 언어의 습득 시간이 필요하다. 주사의 고통이 두려워 주사를 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문자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 또한 타인과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여 자신의 지식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한자

2)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 — 왜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명학, 『한자교육연구』, 제29호, 2005, pp.74-80.

학습은 한글에 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과목에 비해 광범위하고 전반적이다. 내부적으로는 유구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외부적으로는 동아시아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인 한자를 습득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한자 문화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식을 갖게 되어 문화 교류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자는 수천 년간 우리의 조상이 사용하면서 우리의 음과 훈으로 일상생활의 지혜와 각 분야의 무수한 지식이 축적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자산이다. 배타적인 논리와 뺄셈의 법칙만으로 조상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포기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자산을 포기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 정립과 우리의 문자 생활 측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족적 정체성을 중시하였던 근대시기 일본의 경우, 1868년 명치유신을 거치면서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한자를 활용해 서구어를 대량으로 번역하였다. 그들은 한자의 문자적 특성인 의미의 세분화와 막강한 조어력(造語力)을 활용하여 전 분야에 걸쳐 일본식 한자 어휘를 생산하여 국민의 지적 문화적 수준 향상과 근대화 달성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가 실생활 언어에서 학술 용어에 이르기까지 상용하는 한자 어휘 중 상당수가 이 시기 일본에서 새로 만든 일본식 한자 어휘이며[3], 이 어휘들이 광복 이후 순화대상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중국 역시 이들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한자는 뛰어난 조어력과 축약성을 구비하여 학습효과가 높은 문자이다. 현재 교육부가 지정한 기초한자만으로도 이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면 엄청난 수량의 파생어를 생산할 수 있어 하나의 한자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낱말을 배우지 않고도 습득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4) 한자병용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인가?

음성 문자 중심의 서양문화와 대비하여 동양의 문자 중심의 한자문화권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각국의 고유문화 속에 한자문화가 융해되어 있다. 이것은 서양문명에 비교되는 동양만의 전통적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글러블 시대에 한자는 동양의 문화권을 연결하는 끈으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단지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한자교육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강력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 과거 프랑스 지배의 결과로 오늘날 영어 속에 많은 프랑스 어휘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배척하기 보다는 영어의 어휘의 폭을 확장시켜 세계화한 것처럼 우리말의 한자 어휘를 명확하게 익혀 한자의 축약 능력과 조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더욱 윤택해질 것이며 놀라운 발표력의 향상과 학습 신장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자 병용은 국어 생활을 격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 본다.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 이후로 기본한자로 제한하는 등 문자정책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우리말과 동일하게 다량의 한자 어휘로 인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결국 한자병용의 길을

3)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 이한섭, 고려대학출판부, 2014.

택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한자를 활용하여 발달된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각종 신조어를 생성시켜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의 밑거름을 조성하였다. 오늘날 일본이 한자와 가나라는 문자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문화 사대주의 형성이나 민족성 상실, 혹은 경제적 낙후 등의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아도 한자병용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한자는 자의(字義)가 명확하고 시각성과 조어력이 뛰어난 표의문자이다. 한글은 독창적이며 과학적이며 음성언어를 정확하고 쉽게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이다.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문자를 의사소통과 기록의 도구로 사용해왔다. 조상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젊은 세대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가 우리말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사전에 출현하는 어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 역시 우리말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미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완전히 동화된 한자를 배제하기 보담은 한자의 문자적 장점을 활용하여 하여 국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미래 한국인의 문자생활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순혈주의에 입각한 문자정책은 오히려 젊은 세대의 언어능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주변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진영이나 이데올로기의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세계의 중심축은 서서히 동양으로 이전하고 있는 이때, 한자문화권의 공용문자인 한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범모, 「동음이의어의 사용 양상」, 『語學硏究』, Vol.41 No.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2005.

구명회, 「근대 일본의 문자정책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Vol.37 No.1,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김대희,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재고」, 『漢字漢文敎育』, Vol.24,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0.

김창진,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의 필요성」, 『溫知論叢』, Vol.49, 온지학회, 2016.

남풍현, 「한자어와 한자혼용」, 『새국어생활』, Vol.9 No.2, 국립국어원, 1999.

박광민, 「한자 병용의 어문정책적 의미 고찰」, 『漢字漢文敎育』, Vol.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1.

박정서, 『國語의 將來와 漢字의 再認識 : 한글과 漢字의 本質에 對한 考察』, 장문사, 1968.

박천서, 「한글 '전용(專用)'정책과 그 공과(功過)」, 『語文硏究』, Vol.27 No.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9.

배성봉·이광오, 「동음한자어의 이해에서 한자병기의 효과」, 『漢字漢文敎育』, Vol.43,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7.

배수찬, 「고전의 통로로서 한자와 국어교육의 확충」, 『日本語敎育』, Vol.18 No.1,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1.

안병곤·최용혁, 「한국의 한자정책과 한자교육」, 『語文硏究』, Vol.36 No.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이명확,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왜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 『한글한자문화』, Vol.7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5.

이우석, 「한일 양국의 한자정책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한자혼용론의 입장에서」, 『일본학연구』, Vol.30,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이응백, 『(資料를 통해 본)漢字-漢字語의 實態와 그 敎育』, 아세아문화사, 1988.

장성하, 「한자병용에 따른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필요성」, 『漢字漢文敎育』, Vol.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1

전광진, 「한자 병기에 관한 3종 이론 기초성」, 『인문과학』, Vol.59,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정우상, 「한자병용의 당위성과 초등학자교육」, 『한자한문교육』, Vol.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1.

정호성,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Vol.10 No.1, 국립국어연구원, 2000.

진철용, 「국한문 병용 표기가 한자어 의미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어문연구』, Vol.3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汉字并用, 韩文专用, 韩国汉字语, 汉字, 韩文
	영문	Simultaneous Use of Chinese, Hangul Only System, Chinese Characters, Language Policy, Chinese Transcription Vocabularies

A Thought on Korean Orthography of Sino-Korean Words

Na, Yun-Ki

Chinese characters can be regarded as part of Korean national legacy and intellectual resources. They already became one with Korean language,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Korean mind-set and culture. Chinese writing system, which had spread over neighboring countri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writing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However, Chinese writing system used by other countries could not but be influenced and changed b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nguage. Thus, Chinese writing system in each country has been accompanied by unique features, i.e. uniqu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formation of Sino-national vocabulary in each country.

The general language policy of Korea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which has focused on the concept of "Pure Korean language," caused confusion in and conflict with the writing practices of Korean language. The conflict between the policy of pro-pure Korean language and that of pro-real writing practice has not only confused confusion but also degraded young generations' language practices.

In order to upgrade young generations' ability to understand and control Korean language, it is necessary to make them recognize important functions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language. For this, I discuss some unique features of Sino-Korean vocabulary by comparing common words of East Asian countries:

First, the change of semantic categories and referents of Sino-Korean words.

Second, the changes of meanings of Sino-Korean words.

Third, differences in style between old and new Sino-Korean words.

Forth, the changes of emotional tones of Sino-Korean words.

Fifth, the changes of sequences of characters in Sino-Korean words.

Sixth, the generation of unique Korean vocabulary.

Although we accept the need to use Chinese writing system together with Korean writing system, our prejudice prevent us from it. Our prejudice is as follows: First,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hinders the development of pure Korean words. Second, Chinese writing system is not efficient and prevent people from acquiring knowledge. Third, learning Chinese characters maximizes workload. Forth,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is retrospective.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practical meaning of using Chinese characters in writing Sino-Korean words in order to improve our writing practice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나윤기 / 羅潤基 / Na, Yun-Ki		
	소 속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Em@il	nayungi@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2월 18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3월 22일